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담긴 사회적경제 요소에 관한 연구

최병영, 박준우, 이지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한 발 대 학교  
대 천 고 등 학 교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안중근의 생애와 동양평화론
- III. 사회적경제의 이해
- IV. 동양평화론의 사회적경제 요소 분석
- V. 마무리하며

## I. 들어가며

흔히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말로 알고 있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 (Join, or Die)’가 그 원문으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계몽주의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다. 이승만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가운데 이 말을 먼저 자신의 글<sup>1)</sup>에 인용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안중근이다. 여기에서 ‘뭉치다’는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건대 ‘함께하다’, ‘뜻을 같이하다’, ‘합심하여 협력하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면 이는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sup>2)</sup>의 이념과도 통하는 점이 있다.

1) 동양평화론 서문은 “무릇 합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패배한다는 것은 만고에 변함없는 분명한 이치이다.”로 시작된다.

2) 학문적으로 Political Economy가 정치경제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Social Economy를 사회경제로

인류는 근대이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이루었다. 산업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경쟁과 이기심을 통해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생산의 증가와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소득격차, 환경오염, 실업 등의 이러한 문제는 사회발전에 저해가 되었다.

아직은 생소한 개념의 사회적경제를 우리는 단순히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앞서 이야기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작되었고, 그 대안의 결과로 상당부분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일부는 결과로도 확인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에 어두운 그늘을 가져왔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높고 만성적인 실업, 양극화 문제 등 이러한 상황의 사회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의 경제와는 다른 사회적경제가 구원투수의 임무를 부여받고 등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IMF 이후 발아기를 갖고 공공근로 위탁사업 등(노대명, 2007, 57)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글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담긴 사회적경제 요소를 찾는 목적은 이를 통해 대안적이고 문제해결적인 의미가 큰 사회적경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논의해보고, 과연 100년 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담긴 내용과 비교를 통해 그의 동양평화론이 시대를 훌쩍 넘어 오늘날에도 유효한지 또는 어떠한 시사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안중근의 생애와 그의 동양평화론을 살펴본다. 생애와 국권회복 활동의 확인을 통해 안중근이 가진 사상의 배경과 그의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얻고자 했고, 동양평화론의 형성배경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안중근이 희망했던 한·중·일 3국의 평화와 세계평화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대두 배경과 역사적 흐름 그리고 작동원리와 내용 등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담긴 사상이나 실천방안의 사회적경제 요소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제5장은 글을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시도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 요소 측면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번역해야 일관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학자나 기관에서 Social Economy를 사회적경제로 부르고 있다. 이 글은 사회적경제로 표기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라고 띄어 쓰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사회적경제'로 통일하였다. 다만, 향후 사회경제로 일원화됨이 타당하다고 본다.

## II. 안중근의 생애와 동양평화론

### 1. 안중근의 생애와 국권회복운동

#### 1) 안중근의 생애

32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간 안중근은 1879년 9월 황해도 해주부 수양산 아래에서 태어났다. 자는 응칠(應七, 배와 가슴에 일곱 개의 검은 점이 있어 지은 이름)이고, 성질이 가볍고 급한 편이기에 중근(中根)이라 이름을 지었다(안중근, 1995, 23).

할아버지는 진해현감<sup>3)</sup>을 지낸 안인수로 상당한 부호였으며, 그의 6남 3녀 가운데 3남인 안태훈이 안중근의 아버지이다. 안태훈은 조씨와 혼인하여 3남 1녀를 두었는데 그 중 장남이 바로 안중근이다.

학식이 높았던 안태훈은 박영효의 유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갑신정변으로 유학을 가지 못하고, 안중근이 6~7세 되던 해 그의 일가는 황해도 신천군 청계동으로 이주하였다. 안중근은 1894년 16세의 나이에 김아려와 혼인하고, 그해 일어난 동학혁명 전투에서 양반이자 지주였던 안중근과 그의 일가는 동학군과 충돌하였는데 이때 김구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sup>4)</sup>(김구, 2002, 52-59) 1885년 아버지 안태훈이 동학군과의 전투에서 획득한 군량미 문제로 중앙관료인 어윤중, 민영준과 대립하게 되자 이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천주교의 도움을 받은 일은 안중근 집안의 천주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97년 안중근 일가가 세례를 받고 안중근은 성서공부와 활발한 전교활동을 하였다. 이 당시 조선의 문명개화를 위한 대학설립을 외국인 신부에게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실망하고, 선교사로부터 배우던 프랑스어 공부도 중단하며 저항하였다.

“일본말을 배우는 자는 일본의 종놈이 되고, 영어를 배우는 자는 영국의 종놈이 된다. 내가 말일 계속해서 북어를 배우다가는 프랑스의 종놈 신세를 면하지 못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 든 것이다. 말일 우리 한국이 세계에 위력을 떨친다면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통용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안중근, 1955, 40)

1905년 안중근은 가족의 이주와 국제정세의 판단을 위해 아버지와 상의하고,

3) 실제 현감을 지낸 것은 아니고, 명예직이었다.

4) 안중근과 김구의 인연은 동학혁명 과정에서 적으로 만났으나, 후에 안중근의 아버지 안태훈이 김구를 집에 초대하여 보살폈다.

산동과 상해를 둘러보고 오는 길에 프랑스 신부 광선교사를 만나 교육운동과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을 해보라는 조언을 받게 받았다.

“...옛날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는 속히 고국으로 돌아가 먼저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교육의 발달이요, 둘째는 사회의 확장이요, 셋째는 민심의 단결이요, 넷째는 실력의 양성이다. 이 네 가지를 확실히 이루기만 한다면 2천만 마음의 힘이 반석과 같이 튼튼해져...”(안중근, 1955, 59)

이를 받아들인 안중근은 1906년 가족과 함께 진남포로 이주하여 돈의학교와 삼흥학교에서 교육운동을 실천하고, 국채보상운동에도 참여하였다.(안중근, 1995, 56-61) 이듬해인 1907년 일본이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을 강제로 맺어 고종을 폐위하고, 군대를 해산하자 안중근은 지금까지의 교육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 같은 계몽운동의 한계를 깨닫고 북간도를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지역을 돌며 의병을 모으는데 힘을 다하였다.

“...일본은 앞으로 5년 안에 러시아, 청국, 미국 등 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니 그때가 한국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때 만일 한국인이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설사 일본이 진다해도 한국은 결국 다른 도둑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의병을 일으켜 계속해서 싸워 좋은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며, 스스로 강한 힘으로 국권을 회복하여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안중근, 1995, 67)

김두성,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조직해 참모중장(參謀中將)이라는 직분으로 1908년 두만강을 건너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안중근, 1995, 62-75) 1909년 동지들과 조국의 독립을 위한 단체를 만들고 의지를 보이기 위한 동맹의 표시로 왼손 손가락을 자르고 대한독립이라는 글을 써서 맹세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단지동맹이다.

1909년 10월 신문을 통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블라디보스톡 방문소식을 듣게 되고,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등과 함께 준비하여, 마침내 10월 26일 9시 30분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재무장관과 만나고 나온 그를 포살하였다. 이듬해 2월 14일 사형판결을 받고 1910년 3월 26일 순국하였다.

## 2) 안중근의 국권회복운동

안중근의 국권회복운동은 실력양성운동에서 무력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는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선택한 것이다.(한상권, 2003, 46) 이러한 안중근의 국권회복운동은 그의 민권의식과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다. 천주교 입교는 동양에 국한되어 있던 세계관에서 벗어나 동서를 아울러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내부의 모순관계, 천주교 내부의 모순을 체득하고, 민권의식을 통하여 민족 모순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며, 선교사들의 제국주의적 태도를 통해 민족의식을 성장시켰다. 이러한 사회의식의 성장은 향후 계몽운동과 의병투쟁, 의열투쟁의 밑거름이 되었다.(신운용, 2007, 24) 여기에서는 교육식산운동과 의병투쟁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06년부터 1907년까지 안중근은 교육식산운동을 벌였다. 교육식산운동은 실력양성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 문명개화를 이룩한다는 근대국민국가 수립운동이었다.(한상권, 2003, 51)안중근은 1906년 3월에 가족들과 함께 청계동에서 진남포로 이사하였는데, 그가 이곳으로 이사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평양과의 인접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활발하게 전개되던 평양에서의 각종 민족주의적 실력양성운동 역시 안중근을 크게 자극하였음은 물론이다.(오일환, 2009, 39) 신흥도시 진남포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일본에 의해 침탈당해가는 한국의 현실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중근은 이곳으로 이사한 이후 1907년7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애국계몽운동에 열정적으로 투신하면서, 교육운동과 결사운동, 그리고 식산진흥운동(殖産振興運動) 및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오일환, 2009, 39) 돈의학교와 삼흥학교, 두 학교의 경영에 참여한 후 안중근은 빌렘신부와 오랜 토론 끝에 민족의 안녕과 교회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고등교육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것은 곧 '교육구국(教育救國)'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1907년 4월경 상경하여 교구장 뫼텔주교에게 대학설립<sup>5)</sup>을 건의하게 된다. 그러나 뫼텔주교는 이들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오일환, 2009, 40-41) 교육운동 외에도 안중근은 외국의 선진문물을 수용하여 국력을 기르자는 취지하에 국민을 계몽하고자하는 학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1907년 6월 이전에 서우학회(西友學會)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07년에 대구에서 국채보상회(國債報償會)가 발기하고, 각종 신문의 호응으로 전국적 국민운동으로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이 일어나자 국채보상기성회의 관서지부장을 맡은 안중근도 아내에게 장신구 전부를 헌납하게 하고, 삼흥학교의 교원들과 학생들은 물론, 일반 민중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등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오일환, 2009, 43)

5) 대학설립 건의 시기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조금 다르다.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고, 7월24일에는 정미칠조약의 체결로 한국의 외교권이 일제에 박탈당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민중들의 일제에 대한 반감이 거세졌다. 군대가 해산되는 상황이 전개되자 안중근은 교육구국활동이나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비폭력적인 소극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국권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가족을 남겨두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의병활동에 가담하였다. 1908년 7월에 안중근은 국내진공작전을 개시하는데, 함경북도 지역으로 들어가 일본군과 수차에 걸쳐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이때 부대의 좌령장(左令將)을 안중근이 맡았다. 안중근은 공판과정에서 자신이 대한의군(大韓義軍)에 속하며, 자신의 신분을 참모총장, 특파독립대장(特派獨立大將)이라고 말했다.(안중근(공판기록), 1995, 194, 226) 함경북도 경흥군 노면에 주둔하던 일본군 수비대를 급습하여 여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린 그는 당시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생포한 일본군 포로를 만국공법(萬國公法)의 정신에 따라 석방해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정보를 이용한 일본군의 기습공격으로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와 의병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패전에 대한 책임소재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게 되고, 끝내 부대마저 해체되는 상황이 되자 새로운 의병계획은 실행되지 못하였다.(오일환, 2009, 46-48)

## 2.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 1) 동양평화론의 시대적 상황과 형성배경

안중근이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이듬해 3월 26일 순국하기까지 5개월 동안 두 권의 저작을 남겼으니, 하나는 자서전인 『안중근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동양평화론』이다. 여기에서는 그의 동양평화론의 시대적 상황과 형성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중근이 살았던 시대는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한 혼돈과 무질서가 팽배하였고, 힘에 의해 서열이 정해지는 변칙과 격변의 시대였다.(이현희, 2009, 26) 이러한 시기에 일본은 가장 먼저 문명개화를 이루고 기존의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전복시키고 자신을 맹주로 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아시아연대론을 표방하면서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을 추진하였다.(변창구, 2012, 12-13) 일제의 팽창정책의 가속화 전략으로 이토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 것이다.(변창구, 2012, 14)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서구열강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시작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한 인식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낳게 되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당시의 여러 동양평화론 계열(중에서 한·중·일 3국의 제휴를 주장한 문명개화론자들의 삼국제휴론의 연장선

상에 있는 동양평화론이었다. 제후론은 일본의 연대론, 평화론과는 달리 한·중·일 3국이 각기 확고한 독립국가로서 정족(鼎足)<sup>7)</sup>과 같은 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협력하여 러시아를 견제, 방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태진외, 2010, 338) 즉, 일본의 동양평화론이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 위협에 놓인 한반도를 강력한 힘을 가진 일본에 의한 보호국화를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이라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한·중·일 3국의 독립을 바탕으로 정족의 상태를 염두 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에 관한 생각이 형성배경은 가정교육과 종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황해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던 조부와 부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학문을 익혔다. 맹자, 자치통감 등을 공부하였으나 공부를 크게 즐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범 김구의 자서전에도 그와 같은 묘사가 있다.

진사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맏아들은 중근으로 당년 열여섯에 상투를 틀었고 자주색 명주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서 뽕방총을 메고 노인들과 신상동으로 날마다 사냥을 다녔다. 중근은 영기(英氣)가 넘치고 여러 군인들 중에도 사격술이 제일로 나는 새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재주가 있었다. (김구, 2002, 57)

안중근도 그의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평생 동안 특히 즐기는 일이 네 가지 있었다. 첫째는 친구와 의를 맺는 것이요(親友結義), 둘째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요(飲酒歌舞), 셋째는 총으로 사냥하는 것이요(銃砲狩獵), 넷째는 날랜 말을 타고 달리는 것이었다(騎馳駿馬). 그래서 의협심이 있고 사나이다운 사람이 어디에 산다는 말을 들으면 먹고 가까운 것을 가지지 않고 총을 지니고 말을 달려 찾아 갔다. (안중근, 1955, 31)

아버지 안태훈은 학문할 것을 강요하지 않고 그에게 세상을 보다 넓고 깊게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었다. 당시 황해도와 같은 지방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근대적인 서적과 신문 등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었으니 안중근이 10대 때에 유학경전과 역사서 그리고 기독교 성경을 읽었다. 거기에 애국계몽계열의 신문 등을 읽어 이미 10대의 어린나이에 같은 또래의 소년

6) 이는 위정척사 계열, 친일세력 계열, 문명개화론자 계열 등이며 이에 관한 논문은 현광호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사회비평 제36권, 2007:238-239 참조.

7) 정족(鼎:세발 술 정, 足:발 족)이란 술에 발이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세 사람이나 세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안정된 자세를 말하기도 한다.

들과는 구별되는 고등한 학덕을 쌓아 훗날 큰일을 할 인물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며 성장했던 것이다.(윤경로, 2010, 141-142) 부유한 가정형편과 호방한 기질과 함께 어려서부터 젊어서 개화와 유학생에 발탁된 아버지의 영향은 안중근이 개화적인 사상을 갖고 동양평화론을 펼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다음으로는 종교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천주교 세례를 받은 안중근 가문은 천주교당을 세우고 전교활동에도 열심이였으며 이를 통해 천부인권, 민권의식을 갖게 되었다. 천주교 교리와 신앙이 넓은 의미의 기독교 틀에서 볼 때 보수적으로 비춰지지만 당시 한국에서의 천주교 신앙과 그 성격은 매우 개혁적이며 민권적인 성향이 강했다. 특히 지방에서는 더욱 그러 하였다.(윤경로, 2010, 141) 그러나 안중근은 비록 자신이 신앙하고 있는 종교라 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점도 안중근의 남다른 의협심과 정의감과 무관하지 않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안중근의 신앙은 민족의식에 기반을 둔 주체적이며 자립적이었다라는 점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윤경로, 2010, 142) 당시의 신부들은 신도들을 압제하는 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안중근은 항거하였다. 이러한 안중근의 천주교 신앙은 외국인 신부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교리나 주장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과 민족의식과 정의감에 토대한 자립적인 신앙관을 지니고 있었다. 안중근의 천주교 신앙은 한마디로 민족과 국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담보한 주체적인 신앙이었으며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에 기초한 신앙심과 여기에 그의 남달리 강했던 정의감과 의협심 그리고 의리를 장부의 주요 덕목으로 생각했던 성격이 복합, 승화되어 이토를 포살하여 동양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거를 가능케 하였다.(윤경로, 2010, 142)

## 2) 『동양평화론』의 내용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미완성 저작이다. 1910년 2월 14일 사형판결을 받고, 1910년 3월 15일에 그의 자선전 『안응칠 역사』를 마무리했으나 3월 26일 사형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것이다. 동양평화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여 죽기 전에 꼭 저작을 완성하고 싶었던 안중근은 사형집행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끝내 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중근의 집필 계획으로는 『동양평화론』을 서문(序文), 전감(前鑑), 현상(現狀), 복선(伏線), 문답(問答)의 순으로 생각을 정리하여 쓰려고 했으나, 요구했던 것과 달리 사형이 빨리 집행됨에 따라 집필은 서문과 전감 일부에 그치고 말았다.

서문은 일본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침략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한·중·일 동양 3국이 단결하여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순한 항

인종의 연합으로 백인종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지역주의로 동양 3국의 협력을 통해 폭력적인 서양의 침략을 막아 세계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를 세계평화의 구조적 일부로 파악하고, 동양평화를 교란하는 이토를 제거한 것은 일본의 간악한 침략적 제국주의를 막는 것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해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김영호, 2004, 98)

전감에서 그는 역사의 진전은 인간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동아시아지역에서 치른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1905)을 통한 동양사회의 흐름을 설명했다.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의 평화사상이 집약된 저술로, 한.중.일 3국이 각기 자주독립국가로서 힘을 합하여 서양의 침략을 막아 내자는 데 그 근본정신이 있었다. 즉, 3국이 서로 침략하지 않고 독립을 견지하면서 단결하여 서세동점을 추구하는 서구 제국주의세력을 막아야 동양평화가 가능하다고 파악한 것이다.

『동양평화론』은 완성되지 못하였기에 전감이후에 무슨 내용을 쓰려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과 면담한 내용을 담은 「청취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청취서」는 1910년 2월 17일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과의 면담 기록을 서기 타케우치 시즈에(竹内靜衛)가 작성하여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안중근이 가졌던 동양평화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들이 들어 있으니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이 여순을 중국에 돌려주고 여순을 한.중.일 3국이 공동관할하는 개방적 군향으로 만들어 평화의 근거지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여순에 일본을 위수로 하는 한.중.일 3국 대표로 구성된 동양평화회의를 만들어 회원을 모으고 회비를 받아 재정을 충당하며, 3국이 공동으로 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에 통용되는 공동화폐를 발행하고, 3국 주요도시에 평화회의지부와 은행지부를 설립하고, 여순을 반환하는 일본을 배려해 일정부분 세력을 유지하도록 5~6척의 군함을 남길 것 등을 제시했다.

둘째, 서구열강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 한.중.일 3국 대표가 공동관리하는 군단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2개국 이상의 언어를 배우게 하여 우방.형제관념을 높이고, 차후에는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동양평화회의에 자원 가입하게 할 것을 제시했다.

요약하면, 안중근의 동양평화회의 실천적 과제로 여순을 3국이 공동관리하는 군향으로 만들어 평화의 지대로 만들고, 여순에 3국의 동양평화회의를 설립하며, 공동은행을 설립해 각국 통용화폐를 발행하고, 여순에 3국의 공동관리군단을 만들고 군인들은 2개국어를 배우도록해서 우방.형제관념을 제고하자는 것이다.(안중근외, 1995, 54-57)

### Ⅲ. 사회적경제의 이해

#### 1.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과 역사적 흐름

19세기에 등장한 사회적경제는 인류사적으로 볼 때에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니다. 원시수렵 사회의 공동생활 형태에서 힘을 모아 공동으로 사냥하는 것을 비롯하여 중세의 길드나, 우리조상의 전통인 계나 두레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상부상조와 협동하는 경제전통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으며, 이러한 협력하는 경제의 개념인 사회적경제가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은 19세기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후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불황과 호황이 반복되는 경제의 불안정성이 발생하며, 사익과 공익의 괴리, 산업발전에만 따른 환경오염, 인간소외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경제이다. 역사적 관점으로 사회적경제는 사상적(학문적) 영역에서 (정치)경제학에 대한 비판으로 프랑스에서 처음 등장하여 실천영역인 협동조합, 공제조합, 결사체, 민간단체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최근에는 법과 정부정책에 기초한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다양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박진도, 2011, 3)

19세기 초반 자본주의가 막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대규모 도시노동자가 양산되었다. 자본주의 초기였던 그 때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은 임금, 먹거리, 교육, 의료 등 모든 조건에서 매우 열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협동조합<sup>8)</sup>이나 상호공제조합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근대적 사회적경제의 시작

8)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관련 정책 자료에서 내용과 비교표를 인용: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협동조합은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안정, 경제위기시 경제안정 등 경제적 효과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효과 창출.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012. 12. 1시행)

사업범위 :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제외(법 제45조제3항).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칭하고자 한다.

	협 동 조 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설 립 사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li> <li>· 시도지사 신고</li> <li>·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법인</li> <li>·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li> <li>·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등</li> <li>-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li> <li>- 국가·지자체 위탁사업</li> <li>- 그 밖의 공익증진 사업</li> </ul> </li> </ul>
법정적립금 배 당 청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잉여금의 10/100 이상</li> <li>· 배당 가능</li> <li>·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잉여금의 30/100 이상</li> <li>· 배당 금지</li> <li>·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li> </ul>

이다. 당시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는 ‘시장경제를 더 사회적이고 공평한 체제로 전환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제시했다.(신명호, 2009, 14; 김경희, 2013, 130) ‘사회.경제적 목적을 지닌 협동조합을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루이 블랑(Louis Blanc)은 말할 것도 없고, 생시몽(Saint Simon)이나 푸리에(Fourier)같은 사회주의자 역시, 사회적경제의 탄생 배경에 역할을 했다.(신명호, 2009, 14) 1901년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등이 프랑스에서 법적 인정을 받았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었으나 20세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으로 달성된 완전고용과 복지국가 가는 사회적경제의 침체기를 가져왔다. 연금이나 보험의 기능을 맡아 왔던 공제조합, 협동조합은 단순한 경제조직으로 편입 되고, 1940년대 전쟁을 거치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사회적경제는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흡수된 것이다.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위기를 맞자 이의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다시 부각되었다. 시장과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가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다시 사회적경제가 또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는 그 첫 등장부터 다시 주목받는 지금까지 시장경제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새문연, 2013, 7-8)

## 2. 사회적경제의 내용

### 1) 사회적경제의 원리

기존의 시장경제와는 다른 사회적경제의 출발은 인간본성에 관한 가정의 변경에서 시작된다. 사회적경제는 인간이 상호적(또는 호혜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신뢰와 협동을 통해서 연대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1을 통해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와의 대조 과정을 통해 정리하였다.

표 1.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의 비교

	인간 본성	상호작용 기제	상호작용 조건	목표
시장경제	이기성,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	경쟁	등가교환	효율성
사회적경제	상호성, 호모 리시프로칸(Homo reciprocans)	신뢰와 협동	공정성	연대

출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 2013, 4; 채지희, 2013, 11

사회적경제의 핵심인 인간의 상호성(reciprocity)은 최근 행동경제학의 실험인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을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자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을 고려하며, 불공평한 결과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인간의 속성을 뜻한다. 인간이 언제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만큼 베푼다는 뜻이다.’(새문연, 2013, 5)

아담 스미스 이래의 주류경제학은 시장경제에서 개인이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시장에서 균형을 이루어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이기심에 의한 사익추구가 사회전체에게 피해를 가져와 경제위기와 경제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딜레마로 보고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협동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적경제이다.(새문연, 2013, 6)

## 2) 사회적경제의 개념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1830년 프랑스의 뒤누와이어(C. Dunoyer)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지드(C. Gide)와 왈라스(L. Walras) 등에 의해 그 개념이 풍부하게 발전되었다.(송두범, 2013, 41-42) 지드(C. Gide)는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직면하게 되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협에 대해 집단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고,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더욱 사회적(social)이고 공평한(equitable) 사회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적 체제로서 사회적경제를 상정하였다.(신명호, 2009, 14; 김경희, 2013, 130) 때문에 그는 노동조건 개선, 주류경제 및 사회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온갖 위기에 대한 안전보장, 경제적 자립의 보장 등을 사회적경제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신명호, 2009, 14)

사회적경제는 19세기 유럽에서 최초로 그 개념이 등장한 이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사전적 의미 또는 학문적 권위에 의해 정립된 개념은 아직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적경제를 다양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관점 역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국내·외에서 각 기관과 학자들

9) 행동경제학의 출현은 기존의 주류 경제학이 가정하는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 주체로서의 인간이 현실에서 보이는 반드시 이기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행동을 설명하기 부족함에 따라 생겼다. 대표적으로 뉘나누기 게임이 있으며, 인간이 항상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정성을 염두해둔 행동 다시 말해 자기 몫을 나눌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최후통첩게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험은 인간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준다. 첫째, 인간은 남을 생각한다. 만약 이기적인 인간이라면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우연히 1만원이 생겼을 때, 자신이 모두 가지지 않고 옆의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 것이 좋을지 배려한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40% 이상을 나눠주고 있다. 둘째, 인간은 불공평한 행위에 대해서 응징한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상대방이 너무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상대방을 응징하는 것이다. 남을 생각하고, 불공평한 행위를 응징하는 인간의 속성을 상호성(reciprocity)이라고 한다. 상호성의 핵심은 남이 해주는 대로 나도 행동한다는 것이다.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잘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을 상호적(호혜적) 인간, 호모 리시프로칸(Homo-reciprocan)이라 한다.(새문연, 2013, 5)

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그 정의를 살펴 보았다.

먼저 단체의 정의를 보면 OECD는 사회적경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해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로 정의하고 있으며, 학자의 정의로는 드푸르니(Defourny)의 경우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1주 1표제 제외),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4가지 원칙을 따르는 이해 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패인과 번사이드(Payne & Bunside)는 순수하게 박애적인 활동으로부터 인간 중심의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가진 모든 사회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업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영역적 측면에서는 민간시장 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활동 영역으로 규정되며 일반적으로 자원 활동, 지역사회 조직들, 재단, 노동조합, 종교단체, 주택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조직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 신명호는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란 협동조합들 가운데 사회적 목적, 자율성 및 민주적 의사결정, 이윤배분 제한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 등 일부 협동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협동조합, 비영리민단단체 중에서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의 경제활동과 무관한 단체를 제외한 NGO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고, 장원봉은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Participatory economy) 방식이라고 정의한다.(강원도, 2013, 22)

상기한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적 성격의 경제로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사이에 존재하는 활동 영역이고, 둘째 공동체 주도의 경제로서 사회적 목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 노동(고용)중시의 경제 활동이고, 셋째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협력적·호혜적 운영원리로 활동하는 참여경제 조직이다. (강원도, 2013, 23)

### 3) 사회적경제의 특징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학자나 기관, 단체, 국가 등이 모두 다르게 정의함에 그 특징도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김신양이 정리한 특징을 소개한다.

김신양은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특징들에 대한 담론들을 통합하여 공통분모적

인 원칙 4가지를 분류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궁극적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이다. 궁극적 목적이 봉사라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투자된 자본에 대한 재정적 보상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구성원과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가 최종 목표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은 이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 활동의 주요동기가 아니다.

둘째, 운영의 자율성이다. 운영의 자율성은 사회적경제를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는 주요요소이다.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일반적으로 모든 결사조직의 역동성의 근거가 되는 넓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한다.

셋째,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이며, 잉여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한다는 것 등이다. 민주적 통제는 이론적으로 '1인 1표'의 규칙이나 적어도 최고의결기구에서 구성원의 표의 제한으로 표현된다.

넷째, 잉여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한다는 것 등이다. 잉여분배는 사회적경제 조직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자본에 대한 보상의 제한이나 배당금 형태의 잉여배당, 활동의 발전을 위한 수익금 적립, 사회적 이익을 위한 수익금 사용을 의미한다.(김신양, 2012, 5)

#### 4) 사회적경제의 구성

사회적경제의 구성은 유형과 범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국가나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본 글에서는 니낙스(Ninacs)와 드푸르니(Defourny) 그리고 엄형식의 분류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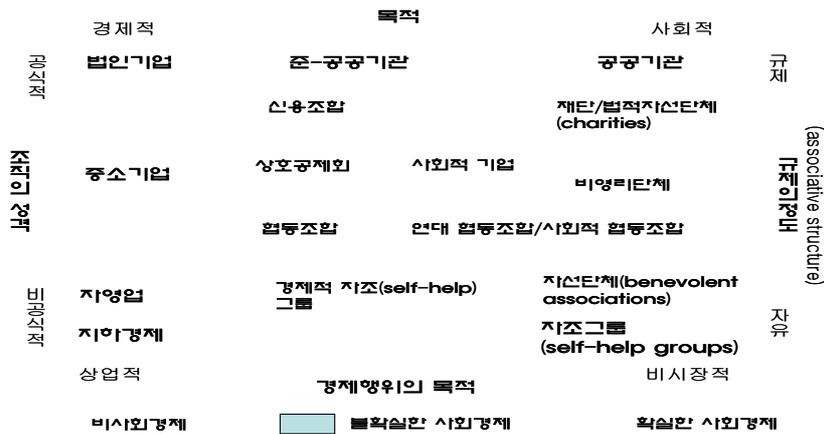


그림 6 . Ninacs의 사회적경제의 구성

출처: Ninacs & W. toye, 2002; 권용덕외, 2011, 13에서 재인용

니낙스가 구성을 도식화한 그림 1을 보면 조직의 목적을 경제적인 것과 사회

적인 것으로 나누고, 오로지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비사회적경제로 우선 제외하며,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우가 사회적경제에 해당한다. 그림의 흰 부분으로 신용조합, 상호공제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비영리 단체 등이다. 이 중 사회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자선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경우에는 제3부문, 비영리부문으로 따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영미권의 경우, 순수한 비영리단체로 구성된 제3부문을 실체로 여기며 이는 재단이나 자선단체의 자발적 행위를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유럽권의 경우, 사회적경제를 중요시하는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는 협동조합, 신용조합, 상호공제회가 중요한 역할 수행하고 있다. 신 사회경제<sup>10)</sup>에서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시하게 모든 조직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특징이 있다.(채지희, 2013, 29)

드푸르니(Defourny)는 사회적경제를 국가, 시장, 공동체의 '중간영역'으로써 파악한다. 이는 사회적경제를 공식과 비공식, 영리와 비영리, 공과 사의 경계에서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시장, 국가, 공동체가 새로운 거버넌스 원리에 따라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원의 영역이 사회적경제 구성 범위가 된다.(김영철, 2011,3 4; 윤상미, 2011,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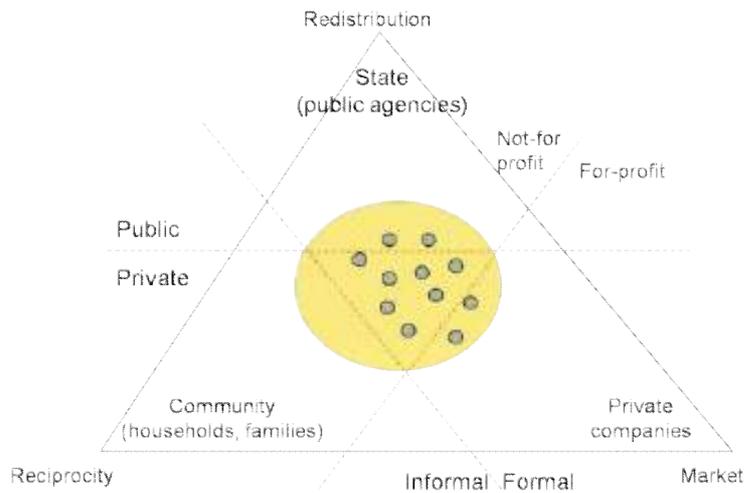


그림 7. Defourny의 사회적경제 영역

출처: Defourny & Pestoff, 2008, <http://goodeconomy.hani.co.kr/archives/1232>에서 재인용

10) 사회적경제 중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것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으며 이들을 가리켜 신 사회적경제(New Social Economy)라고도 부른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포르투갈에서는 '사회연대협동조합', 캐나다에서는 '연대협동조합', 덴마크에서는 '프로젝트 개발', 영국과 미국에서는 '지역개발기업'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조합원뿐 아니라 노동자, 소비자,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회경제와 차이가 있다.

엄형식은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구성에 대하여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새로운 사회적경제로 이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를 다시 전통적 협동조합과 민간단체, 새로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으로 나누었다. 그 구성은 표 2와 같다.(신명호, 2009, 32)

표 2.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구성

기 준	유 형	조 직
전통적 사회적경제	전통적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로운 사회적경제	민간단체	
	새로운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출처: 엄형식 (2008). 한국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123; 신명호, 2009, 32에서 재인용  
정리하면, 사회적경제의 구성은 전통적으로 신용조합, 상호공제회, 협동조합 등이 있고, 20세기 후반 등장한 사회적경제로 사회적 기업, 연대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추가되었다. 비영리 부문으로 재단, 법적 자선단체, 비영리 단체 등이 있는데 이들은 나라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한 분야로 분류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새문연, 2013, 11)

## IV. 동양평화론의 사회적경제 요소 분석

### 1. 연대의 정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담긴 첫 번째 사회적경제 요소는 연대의 정신이다. 동양평화론 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무릇 함치면 성공하고 흠어지면 패배한다는 것은 막고에 변함없는 본명한 이치이다. (안중근, 1995, 169)

통역이 작성한 일본어 원문에 '합성산패 만고상정지리아(合成散敗 萬古常定之理也)'<sup>11)</sup>라고 쓰여 있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이승만의 말로 알고 있는 '몽치면

11) 안중근전기전집, 윤병석역편, 국가보훈처, 184

살고 흠어지면 죽는다'는 말이다. 이는 본래 미국의 독립운동과정에서 식민주주 민들의 통합을 역설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sup>12)</sup>

서세동점의 시대에 동양 3국의 연대를 통해 서구 열강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고 그 침략에 대응하자는 이른바 '아시아 연대론(連帶論)'이 주장되었고, 조선의 개화지식인에게도 이러한 주장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서구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단위로 연대(連帶) 혹은 단결(團結)된 동아시아를 상정하는 논리는 논자에 따라 아시아 연대론, 아시아주의, 동양주의, 삼국공영론, 삼국제후론, 동양평화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이헌주, 2009, 308) 동아시아 삼국의 연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아시아주의는 맹주로서의 일본의 역할이 강조되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주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었다.(이헌주, 2009, 307-308) 그러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연대는 그러한 제국주의의 침략적 논리의 연대를 거부하고 한·중·일 3국의 독립에 기초한 연대로 정족을 기초로 하는 연대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연대를 통해 서양세력의 동양침략을 저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세계의 일부인 동양평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사회적경제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제3섹터(the Third Sector),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 자원활동부문(Voluntary Sector) 혹은 연대의 경제(Solidarity Economy) 등의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기도 한다.(장원봉, 2007, 6) 여기에서 연대의 경제는 연대주의를 실현하는 경제라고 볼 수 있다. 연대, 단결, 결속으로 해석될 수 있는 Solidarity는 궁극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일치됨을 지향한다.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조직인 협동조합은 자조(self-help), 자기책임(self-responsibility), 민주주의(democracy), 평등(equality), 공평(equity), 연대(solidarity)의 기본적 가치를 토대로 삼고 있다.<sup>13)</sup> 앞서 사회적경제를 가능케하는 원리를 살펴보면 사회적경제의 궁극적 목표가 바로 연대였던 것이다.

안중근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원인을 한국과 청나라의 도움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에, 만약 한국과 청국(淸國), 양국 국민의 상하가 일치해서 지난날의 원수를 갚고자 일본을 배척하고 러시아를 도왔다면 일본은 큰 승리를 거둘 수

12) '뭉치지 않으면 죽는다'(Join, or Die)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계몽주의 사상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든 유명한 정치 카툰 중 하나로, 1754년 5월 9일 프랭클린이 직접 운영했던 펜실베이니아 가제트에 처음 실렸다. 이 카툰은 미국 독립전쟁 중 식민지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상징이 되었다. 안중근이 이 말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당시 신문의 영향이거나, 천주교 선교사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http://ko.wikipedia.org/wiki/뭉치지\\_않으면\\_죽는다](http://ko.wikipedia.org/wiki/뭉치지_않으면_죽는다) 참조.

13)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1995,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 참조

없었을 것이나 그것을 어찌 예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한창 양국 국민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일본 군대를 환영하고 운수, 치도, 정탐 등의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힘을 기울였다. 이것은 무슨 이유였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일본과 러시아가 개전(開戰)할 때 일본 천황의 선전포고문 중에 ‘동양평화를 유지하고 대한 독립을 공고히 한다.’ 했으니 이 같은 대의(大義)가 짧은 하늘의 태양빛보다 더 밝아, 한국과 청국의 국민들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를 막론하고 한 마음이 되어 이를 멸었기 때문이다...(안중근, 1955, 170)

연대를 위한 전제조건은 당연히 연대하려는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안중근 시대에 신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독립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는 동안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쟁이 아니라 조선을 병합하려는 세력 간의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은 안중근은 한·중·일 3국이 완전하게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3국체휴나 3국공영 또는 아시아연대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궁극적 목표인 연대를 이루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2. 민주주의 정신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담긴 두 번째 사회적경제 요소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프랑스 학자 드프루니(Defourny)는 사회적경제를 “구성원 또는 공익을 위한다는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의 중시라는 네 가지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이라는 것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2012년 대선은 우리에게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던졌다. 비록 지금의 상황에서 그 진행정도가 미흡할망정 경제민주화는 우리사회에 중요한 담론의 소재이다. 이러한 논의 중 하나로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한국경제의 천민성을 해체하는 자유주의적 개혁을 강조하는 논의로 경제영역에서 ‘1인 1표’제에 의한 정상적 시장경제 수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sup>14)</sup>(정건화, 2013, 9)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는 조합원이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1%’ 특권층이 아닌 ‘99%’ 다수를 위한 경제를 지향한다고 보고 협동조합을 경제민주화의

14) 장하성, 김상조, 김기원 등의 학자들이 대표적이다.

한 요소로 꼽았다. 경제민주화를 '1원 1표'라는 시장주의 원리를 민주주의의 원리인 '1인 1표'로 견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맥이 맞닿은 논리다. 장하준은 협동조합과 노조 등 작은 경제주체들의 '민주적 담합'을 경제민주화의 한 요소라는 주장도 했다.<sup>15)</sup> 앞서 협동조합의 가치에서도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업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에서 가장 다른 점은 역시 1원 1표(1주 1표)냐 1인 1표냐 일 것이다. 표 3을 통해 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협동조합 비교를 보면 1인 1표의 운영방식을 갖는 협동조합이 그동안 자본을 우선했던 시장주의와 사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와 비교해 볼 수 있다.

표 3. 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협동조합 비교

구분	상 법	협동조합기본법		민 법
		일반	사회적	
구분	주식회사	협 동 조 합		사단법인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 익
운영방식	1주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신고제	신고(영리)	인가(비영리)	인가제
책임범위	유한 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 예	대기업 집단 삼성전자(주) 등	일반경제 활동분야	의료협동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 영 리 법 인 >		< 비 영 리 법 인 >
		< 사 회 적 기 업 > (고용부인증기업)		

출처: 기획재정부, 2012, *상생과 통합의 미래 협동조합과 함께*, 협동조합 자료집, 306에서 편집

안중근은 「청취서」에서 다음과 같은 동양평화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여순을 개방한 일본, 청국 그리고 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으로 만들어 세 나라에서 대표를 파견해 평화회의를 조직한 뒤 이를 공  
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야심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일이다. 여순은  
일단 청국에 돌려주고 그것을 평화의 근거지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이라고 생각한다...

15) <'1인 1표' 협동조합 경제민주화 대안으로 관심>, 2012년 11월 5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04/0200000000AKR20121104044000002.HTML>

…재정확보에 대해 말하자면 여순(旅順)에 동양평화회의를 조직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한 명당 회비로 1원씩 모금하는 것이다. 일본, 청국 그리고 한국의 인연 수역이 이에 가입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청취서, 1995, 55)

일본은 여순을 중국에 반환하고 여순을 중립화 지역으로 선포하여 동양평화회의를 만들고 한·중·일 3국이 대표를 파견하여 공동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때, 동양평화회의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비로 1원씩을 걷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동양평화회의의 운영방식 또는 의사결정을 자본이나 힘의 논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1원 1표 방식이 아니라, 협동조합과 같은 1인 1표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의 힘에 기반한 동양평화회의의 운영은 한 국가만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國際通貨基金,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운영에 있어 투표권은 국가별로 할당된 특별인출권(SDRs)의 지분만큼 투표권을 가지는 전형적인 국제기구의 1원 1표 방식의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sup>16)</sup> 최초의 근대협동조합이 축구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인 맨체스터 인근의 로치데일(Rochdale)에서 1844년 설립된 소비자협동조합형태로 시작되었으니 1900년대의 안중근이 협동조합의 개념을 알고 있었는지는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개념이 탄생된 유럽의 여러 이론을 안중근이 천주교 신부들을 통해 접했을 가능성은 안중근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 특히 마키노 에이치 교수(일본 호세이 법정대학 철학과)는 안중근과 칸트가 말하는 평화사상의 두 가지 공통점을 지적하면서 프랑스인 신부인 빌렘에게서 칸트의 평화사상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을 예상했다.(이태진, 2010, 341-342) 일찍부터 천주교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천주교 신부와의 교류는 안중근에게 민권의식의 확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도 갖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3. 공동체정신과 호혜주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담긴 세 번째 사회적경제 요소는 공동체정신과 호혜주의이다.

‘왈론사회적경제위원회(CWES)<sup>17)</sup>의 의뢰를 받아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한

16)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 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17) “프랑스에서 전통적 ‘사회적경제’와 연대적경제가 다소간 갈등적인 성격으로 발전했던 데 반해, 프랑스 이외에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받아들인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흐름과 이에 자극받은 전통적 ‘사회적경제’,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경제’를 받아들이게 된다. 불어를 사용하면서 프랑스의 상황에 민감한 벨기에 왈론지방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경기침체와 실업문제에 맞서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바 있는 드푸르니는 이 부분을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도 전체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을 지향하는 경제라는 것이 개념의 내포를 구성하는 일차 요소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신명호, 2009, 26) 사회적경제는 자본보다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 개념이다. 이윤이 최고의 목표인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적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으로 공동체의 보편적 이익 실현, 민주적 의사 결정,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사회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 가치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경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협동과 연대, 신뢰가 필수이다.<sup>18)</sup>

사회적경제는 그 조직이나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나, 협동조합의 경우에 해당 조합원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는 구성원이나 조합원의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나 조합원의 공동체인 지역사회의 발전은 당연한 과제이기도 하다. 본래 사회적경제의 출발은 대규모·전국적 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 소규모·지역적 단위로 형성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이 지역구성원이자 사회적경제의 구성원인 조합원이나 가입자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환경과 경제의 문제는 고스란히 구성원의 문제로 다가 오는 이치이다.

지금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뻗어오는(西勢東漸) 한낱은 동양 사람이 일치당 격해서 극력 방어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본은 무슨 이유로 당연한 대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같은 인종의 이웃나라를 치고 우의를 끊어 방황지세(蚌鷸之勢)<sup>19)</sup>를 만들어 어부에게 쌀 좋은 입을 시켜주려고 하는가? 이로써 한청 양국인의 소망은 크게 깨져 버리고 말 것이다. (안중근, 1995, 171)

위와 같이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의 서양 제국주의 침략을 대비하여 한·중·일 3국은 개별 국가의 이익보다 지역공동체 즉,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정신의 발휘는 기존의 시장경제의 경쟁과 이기심에 의한 개인적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대비되는 사회적경제의 출발점으로 상호주의 또는 호혜주의 경제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

협동조합운동의 영향으로 1988년 ‘알론’사회적경제위원회(Conseil Wallon de l’Economie Sociale: CWES)가 결성되었다. CWES는 경제학자 드푸르니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1990년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채택하였다.” 엄형식, 2008: 52, 신명호의 논문 참조.

18) <http://www.gangseo.seoul.kr/site/economy/c6/page1.jsp>

19) 도요새가 방합조개를 먹기위해 부리를 조개에 넣었다가 방합이 물고 놓지 않아 서로 다투는 사이에 둘 다 어부에게 잡히고 말았다는 말로 서로 맞서서 양보하지 않고 다투는 형세

다. 도요새와 조개처럼 각자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무한경쟁적 행동은 결과적으로 어부(서구열강)만 이롭게 하는 행동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도요새와 조개 관계인 한,중,일 서로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의 발휘인 것이다.

#### 4. 교육의 중요성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담긴 네 번째 사회적경제 요소는 교육의 중요성이다.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성공에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성장과 성장의 밑바탕을 조성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양성체계 즉, 교육부분이다. 사회적경제를 만약 “한 사회 속에 존재하는 스스로 잘 살고자 하는 능력들과 선한 의지들을 경제적으로 결합시킨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사람들 속에 있는 선한 의지를 조직하고 그것을 사업이라는 형태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활동가’의 능력과 자질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결국 ‘사람’인 것이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노력을 조직할 수 있는 선구적인 활동가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을 세대 간에 계승시켜 가는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다.(기획재정부, 2012, 6) 국제노동조합연맹(ICA)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제5원칙은 교육에 관한 것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임직원, 경영자, 이용자들이 협동조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협동조합 발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협동조합은 일반인은 물론 젊은 층과 여론지도층에게 협동의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마련 등이 필요하지만, 이는 조합원들이 내기업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소유의식을 갖도록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sup>20)</sup> 1937년 국제노동조합연맹(ICA)원칙이 정해진 이후 교육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sup>21)</sup>

안중근은 「청취서」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상의 방법으로 동양의 평하는 지켜지나 일본을 노리는 역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나라의 청년들로 군단을 편성하고

20) <http://www.makehope.org/협동조합기본법-살펴보기-3협동조합기본법과-국제/>

21) 국제노동조합연맹(ICA) 원칙의 변천과정에서 1937년 교육촉진, 1966년 교육촉진, 1995년 교육, 연수 및 홍보로 정해졌으며 교육은 변함없이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활성화 선진사례 연구: 한국과의 비교분석.p.42. <표 7> 국제노동조합연맹(ICA) 원칙의 변천 참조

이들에게는 2개국 이상의 어학을 배우게 하여 우방 또는 형제의 간념이 높아 지도록 지도한다. ... (안중근씨, 1996, 57)

단순한 군사협력 수준의 연합군 형태가 아니라, 이질적 문화를 가진 3국 군인들이 교육을 통해 한·중·일 3국이 우방이라는 생각과 더 나아가 형제라는 관념이 투철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비록 다국적지만 단일군대 형태의 공동군단을 통해 동양평화유지 및 대외적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군대는 교육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교사로 활동한 경험 그리고 비록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문명개화를 위한 천주교 대학설립을 건의했던 경험들이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V. 마무리하며

본 연구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내용을 사회적경제의 관점을 통해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중근의 생애와 그의 동양평화론을 살펴보고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동양평화론에 담긴 사회적경제적 요소로 연대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공동체 정신과 호혜주의, 교육의 중요성 등을 얻어냈다.

이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은 100년 전 인물인 안중근이 당대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고, 그 해결책으로 내놓은 동양평화론이 과연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점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었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사하는 바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대의 정신에 있어 기초는 신뢰이다.** 오늘날 한·중·일 3국은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호간 무역이 활발하고,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활발하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한·일, 한·중, 중·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사나 영토와 관련된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이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100년 전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EU(유럽연합)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혹은 북아메리카 통화 동맹(The North American Currency Union)<sup>22)</sup> 등으로 연합하여 여전히 그들의 세력확장

을 도모하고 있는 중이다. 안중근 시대의 신뢰는 독립의 보장이었고, 연대를 통해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안중근은 주장한다. 이러한 승리를 현대에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바탕을 둔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둘째, 민주주의 정신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 수 록 더욱 소중하다.** 모든 결정이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자본주의 시대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음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양극화 문제가 그렇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나온 사회적경제에서 민주적 운영과 의사결정 방식에 활용되는 1인 1표라는 민주주의 정신은 자본주의 의사결정의 원리인 1인 1표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유용하다. 여순에 설치한 3국 평화회의의 재정을 3국 국민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그 회원의 회비로 충당해서 조달하는 방법을 통해 자본의 논리나 힘의 논리에 의한 1인 1표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3국의 평화와 국제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던 동양평화론은 시대를 초월하여 민주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셋째, 공동체 정신과 호혜주의는 사회적경제의 출발과 같다.** 지나친 사익 추구가 공공선의 달성을 방해할 수 있음을 깨닫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작게는 가족공동체로부터 지역, 국가공동체 등에도 요구된다 하겠다. 시장경제가 가정했던 인간 본성의 이기심을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상호성, 호혜성이 가능한 인간으로 가정할 때 사회적경제가 출발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안중근이 3국의 모습을 방홀지세로 비유하며 3국의 이기적 행동에 공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공동체의식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현재 벌어지는 한·중·일 3국의 군사력 경쟁은 군비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대립은 결국 미국이나 유럽의 경제적 이익에만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서, 영토문제는 물론이고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내륙의 사막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문제, 3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복구 문제 등 3국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시대에게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지역적 또는 국가적 이기심을 극복할 것을 동양평화론을 통해 시사하는 것이다.

---

22) 미국의 제안에 따라 북아메리카 대륙을 단일 경제권으로 파악한 경제 통화 동맹 또는 경제 통화 통합의 구상이다. 아메리카 합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3국이 연합 구상의 중심으로 놓여 있다. 단일 통화로서 아메로(Amero)라는 이름이 자주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북아메리카\\_통화\\_동맹](http://ko.wikipedia.org/wiki/북아메리카_통화_동맹) 참조.

넷째, 교육의 중요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강조되는 사항이다. 사회적경제의 성공을 위해 강조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안중근은 「청취서」에서 공동군단 소속의 군인들을 교육함에 있어 2개국어 이상의 교육을 통해 우방을 넘어 형제의 관념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안중근의 주장을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한·중·일 3국은 언어뿐 아니라 문화와 역사의 교육 즉, 사회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국 중심주의 혹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결말은 매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이 교육의 중요성은 이질성을 이해하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일임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자 본인의 부족함과 게으름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중근이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연구는 더욱 그러하다. 3국 평화회의 회원에게 회비를 거두는 일이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원칙인 1인 1표에 꼭 들어맞는지, 또는 협동조합의 그 원칙이 최초로 정해진 1937년 이전에도 있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여러 다른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것은 다음 연구의 숙제로 남겨두고 글을 마친다.

### <참고 문헌>

- 김구, 도진순 주해(2002), 백범일지, 경기: 돌베개.
- 안중근, 신용하 엮음(1995), 안중근 유고집, 서울: 역민사.
- 안중근외(1995), 21세기와 동양평화론, 경기: 국가보훈처, 광복회.
- 윤병석 역편(1999), 안중근전기전집 서울: 국가보훈처.
- 이태진외, 안중근-하얼빈학회(2010),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경기: 지식산업사.
- 신운용(2007), 안중근의 민족운동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상미(2011),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기업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지희(2013), 한국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자립 성공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 126-150.
- 김영철(2011),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25-49.
- 노대명(2007),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사회적경제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5(2), 35-71.
- 변창구(2012), 안중근 의거의 국제정치적 배경과 의의, 민족사상 민족사상, 6(2), 9-36.
- 신명호(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6.
- 윤경로(2010), 안중근의거 배경과 「동양평화론」의 현대사적 의의 : 동아시아의 평화와 미래를 전망하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6, 137-176.
- 오일환(2009), 안중근의 구국활동과 그 정치적 의미, 민족사상, 3(1), 33-66.
- 이현주(2009), 1880년대 전반 조선 개화지식인들의 ‘아시아 연대론’ 인식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23, 307-347.
- 이현희(2009).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상 인식, 민족사상, 3(1), 9-31.
- 장원봉(2007),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화, 시민사회와 NGO, 5(2), 5-34.
- 정건화(2012), 민주주의, 지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 동향과전망, 86, 7-43.
- 한상권(2003). 안중근의 국권회복운동과 정치사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1, 45-84.
- 김신양(2012),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 CDI세미나 2011-09, 충남발전연구원.
- 강원도(2013),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강원, 강원발전연구원.
- 권용덕외(2011), 경남의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경남, 경남발전연구원.
- 기획재정부(2012),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활성화 선진사례연구: 한국과의 비교 분석, 기획재정부.
- 박진도(2011), 충남형 사회적경제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2013), 사회적 경제 생태계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송두범(2013), 충남 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1/04/0200000000AKR20121104044000002.HTML>(2014. 5. 8).

<http://goodeconomy.hani.co.kr/archives/1232>(2014. 5. 8).

<http://www.gangseo.seoul.kr/site/economy/c6/page1.jsp>(2014. 5. 8).

[http://ko.wikipedia.org/wiki/뭉치지\\_않으면\\_죽는다](http://ko.wikipedia.org/wiki/뭉치지_않으면_죽는다)(2014. 5. 8).

<http://www.makehope.org/협동조합기본법-살펴보기-3협동조합기본법과-국제/>(2014. 5. 8).

[http://ko.wikipedia.org/wiki/북아메리카\\_통화\\_동맹](http://ko.wikipedia.org/wiki/북아메리카_통화_동맹)(2014. 5. 8).